

12. Im SB, Kim KE. Clinical nurses' job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4:390-399.
13. Jang HS, Haesook.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atisf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MBTI personality patterns(Focused on 3th military Cadet). 융합보안논문지.2016;16(3):11-26.
14. Jung CG. Psychological Typology. Vol.6.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5. Jung HK, Kim MS, Yoo YJ.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13:516-525.
16. Kim Hwasun, Rho Insuk, Hong Jimyeong.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Styl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2018;9(5):777-786.
17. Kang MJ, Hah YS. Clinical nurses' job stress and coping style according to enneagram personality type. Korean J. Str. Res. 18:110.
18. Kim GH. "Analysis of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in Urban Parks on Work Stress and the Resilience of Office Workers: the Mediative Effect of Psychological Detachment", Ph.D. dissertation, 2014
19. Kim HS, Park GR. Effects of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Using MBTI: Effects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 in Company Employees. 정신간호학회지.2010;19(3):261-270.
20. Kim JH. "Resilience", Wisdom House, Gyeonggi, 2011.
21. Kim JI. A study on the MBTI personality type and self-efficacy for the alternativ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ungnam University.
22. Kim JT, Shim HS, Je SB. Development and usage of Myers Briggs Type Indicator (MBTI).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Seoul.
23. Kim MH. The Effects of MBTI based Self Growth Program on Ego Identity, Self 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 2006;12(2):233-246.
24. Kim YH.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type, sense of humor and stress coping. Korean Acad. Fam. Welfare. 5:121-138
25. Kwon YH, Kwag, OG. Effect of Ready Planned Small Group Collaboration Learning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0;11(11):4441-4448.
26. Lee HS, Kim EJ.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동서간호학연구지.2008;14(1):5-13.
27. Lee JW, Yong SE.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ing Students. 보건의료산업학회지.2013;7(2):125-134.

28. Lee JY. MBTI Personality Type, Self-Efficacy, and Ways of Coping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0;18(3):219-227.

29. Lee YN. A study on the job stress factors, job stress percep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at hospital. Seoul: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2003;

30. Lee OJ.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and Stress Coping Styles as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3;17(3):77-85.

31. Li MH. Relationships among Stress Coping, Secure Attachment, and the Trait of Resilience among Taiwanese College Students. Coll Stud J. 2008;

32. Myers IB. Introduction to type. 4th ed.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Palo Alto, CA.

33. Nam IS, Lee CH. The Effect of Arousal Seeking on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010; 19(1):331-343.

34. Nam SH. A study on stress in practice and coping style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5. Park J, 임승환. A Study on the Cor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Traits Center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ersonality Typologies. 상담학연구. 2004; 5(1):1-16.

36. Park JA, Lee EK.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y Society, Vol. 17, No. 3, pp. 267-276, 2011.

37. Park SM, Kim JS. A study on pre-service teachers' personality types and self-efficacy. Korean J. of Child Care and Edu. 50:253- 273.

38. Polk LV. Toward a Middle-range Theory of Resilience. ANS Adv Nurs Sci. 1997; 19(3):1-13. doi: 10.1097/00012272-199703000-0

39. Robbins SP. Organizational behavior. 3rd ed. Prentice-Hall. Upper Saddle River, NJ.

40. Rutter M.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 J Psychiatry . 1985; 147(6):598-611. doi: 10.1192

41. Yang YK.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8;25(2):99-108.

#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상관관계 : 시뮬레이션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 Focusing on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simulation practice

류양걸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손효승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황단영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수연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신지수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이다영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배영채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전유선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이다겸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성유라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박예원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이수진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박이레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박경순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지도교수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은 멀티미디어 기술, 모형, 인체모형 시뮬레이터 등을 포함하는 교육 형태로써 실제 상황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수업과정으로 최근 의학 및 간호학에서는 학생들이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임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Bond & Spillane, 2002).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권리와 안전보장의 강화는 간호대학생에게 제한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여 전문지식, 간호 술기의 성취수준과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수업설계나 교육과정, 다양한 교수법 개발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조옥희, 황경혜, 2016)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은 학생들의 실수 교정, 의사소통 증진, 팀워크 증진, 학업성취도 및 임상수행능력의 증가(Haskvist & Koop, 2004; Nehring & Lashley, 2004)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자신감과 만족감 향상(Jeffries, 2005) 및 자신이 선택한 중재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으며 디브리핑(debriefing)을 통해 실제적으로 실습한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반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고된다. (Beyea & Kobokovich, 2004; Rhodes & Curran, 2005)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질적인 간호에 대한 대상자 요구로 인해 간호학생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간호술기 실습의 기회가 부족하고(조미혜, 권인수, 2007), 사례대상자의 간호과정 적용 시에도 직접적인 간호중재의 수행보다는 관찰위주의 실습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진주, 2007). 따라서 최근 간호교육에서는 이러한 임상실습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간호술기를 실습하여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양진주, 2008; 이숙정, 노영숙, 김주옥, 장기인, 류언나, 박영미, 2010; 이주희, 김소선, 여기선, 조수진, 김현례, 2009; 이주희, 최모나, 2011). 이외에도 2019년 이후 발생한 COVID-19로 인한 임상실습의 기회가 줄어들어 따라 시뮬레이션 학습이 확대되고 있고, 임상실습의 경험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뮬레이션 학습 또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김동욱 외, 2019).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실무능력인 핵심기본간호술은 임상상황에서의 적절한 판단, 지식과 기술 등 임상수행능력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을 통한 학습과 항목별 성취여부에 대한 평가와 관리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저하될 경우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핵심기본간호술에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최금희 외, 2019).

자기효능감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고, 임상 수행 능력 향상에 중요한 예측요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위해 최근 활발히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교육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김미옥, 2016) 이외에도 대학병원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졸업 후 임상에서의 직무만족도 증진을 위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시뮬레이션 학습을 경험한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확인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법을 통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C지역에 소재한 C대학 간호학과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1학기 이상 이수한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선정기준

1학기 동안 2시수 시뮬레이션 실습을 충실히 완료한 4학년 학생 중 편의 추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표본 수는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3, 검정력 0.8, 유의수준 0.05로 하였을 때 최소한의 표본수인 87명이 산출되었다.

### 2) 제외기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93명 중 5명 탈락으로 88명이 최종적 참여했으며, 설문조사 항목 중 모든 설문을 같은 항목으로 선택한 사람 5명을 제외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성공적으로 필요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측정 도구는 Sherer 등 (1982)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 자기효능척도를 수정 보완한 Oh (199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총 점수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Oh (199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4 이었다.

## 2)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수행자신감이란 어떠한 일을 뜻대로 이루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이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측정 도구는 간호대학생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을 실습과정 중 수행함에 따른 자신감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점수이다. 선행연구인 Bang (2014)의 연구에 근거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Bang (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96 이었다.

## 3) 시뮬레이션 실습

시뮬레이션 학습의 특징은 실제 직무수행과 동일하게 구성된 훈련으로 실습장 훈련과 유사하지만 훈련을 위해 시뮬레이션 기기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항공회사에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실제 조종실과 동일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키는 경우이다. 최근에 개발된 시뮬레이션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피훈련자의 두뇌에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수행시키는 방법이며 컴퓨터를 통해 3차원의 경험학습이 가능하다. 본교에서 시행하는 시뮬레이션 학습은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시뮬레이터 또는 모의 환자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이를 재현하고, 그 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통해 임상지식과 간호술을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를 고취시키는 실습교육을 말한다.

##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09월 06일부터 2022년 10월 07일까지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 C지역 1개 대학의 4학년 재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설명문을 통해 연구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게 한 후 진행하였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통해서 연구 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구글폼을 사용한 온라인설문지(약 5분)로 총 93부를 수거하여 통계분석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 보장 및 개인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후 즉시 파기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를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하는 경우만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접속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참여 동의여부에 동의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설문지에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시뮬레이션 실습 만족

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 간호사 직무에 대한 기대감,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93명 중 5명 탈락으로 88명이 최종적 참여했으며, 여학생이 80명(90.9%), 남학생이 8명(9.1%)이었고, 평균연령은 20~23세가 45명(51.1%), 24~27세가 28명(31.8%), 27~30세가 10명(11.4%), 31세 이상이 5명(5.7%)이었다. 학업성적은 4.0 이상 13명(14.8%), 3.5이상 4.0미만이 36명(40.9%), 3.0이상 3.5미만이 30명(34.1%), 3.0미만이 9명(10.2%)이었고, 시뮬레이션 실습 만족도는 전혀 아니다 6명(6.8%), 대체로 아니다 11명(12.5%), 보통이다 19명(21.6%), 대체로 그렇다 41명(46.6%), 매우 그렇다 11명(12.5%)로 측정되어 보통을 제외한 시뮬레이션에 실습에 만족하는 인원이 52명(59.1%)으로 과반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혀 아니다 3명(3.4%), 대체로 아니다 5명(5.7%), 보통이다 25명(28.4%), 대체로 그렇다 38명(43.2%), 매우 그렇다 17명(19.3%)로 시뮬레이션 실습 만족도 대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졸업 후 간호사 임상 직무에 대한 기대는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3명(3.4%), 대체로 기대되지 않는다 9명(10.2%), 보통이다 22명(25.0%), 대체로 기대된다 34명(38.6%), 매우 기대된다 20명(22.7%)이었다.

표 1. 일반적 특성

(N=88)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퍼센트	M±SD
성별	여자	80	90.9	
	남자	8	9.1	
나이	20-23세	45	51.1	
	24-27세	28	31.8	
	27-30세	10	11.4	
	31세 이상	5	5.7	
학업성적	4.0 이상	13	14.8	
	3.5 이상 4.0 미만	36	40.9	
	3.0 이상 3.5 미만	30	34.1	
	3.0 미만	9	10.2	
시뮬레이션 실습 만족도	전혀 아니다	6	6.8	3.45±1.08
	대체로 아니다	11	12.5	
	보통이다	19	21.6	
	대체로 그렇다	41	46.6	
	매우 그렇다	11	12.5	
임상실습 만족도	전혀 아니다	3	3.4	3.69±0.96
	대체로 아니다	5	5.7	
	보통이다	25	28.4	
	대체로 그렇다	38	43.2	
	매우 그렇다	17	19.3	
졸업 후 임상 간호사 직무 기대감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3	3.4	3.67±1.04
	대체로 기대되지 않는다.	9	10.2	
	보통이다	22	25.0	
	대체로 기대된다.	34	38.6	
	매우 기대된다.	20	22.7	

##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의 평균은 85점 만점에 49.63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76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17점으로 측정되었다.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2.85로 나타났다. 문항 중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가 3.82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가 2.2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 문제점 중의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착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한 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나는 즐겁지 못한 일이라도 그것을 끝낼 때까지 매달린다', '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착수한다', '나는 쉽게 포기한다' 항목들이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들을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포기한다',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경우에 초기에 성공적이지 못하면 곧 포기한다', '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한다', '나는 어떤 일을 해내는 나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항목들은 평균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 자기 효능감

(N=88)

자기 효능감 설문지	M±SD	Min	Max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8±0.81	1	5
내 문제점 중 의 하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바로 착수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2.98±1.15	1	5
나는 어떤 일을 한 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3.51±0.90	1	5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들을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2.68±1.09	1	5
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포기한다.	2.40±1.16	1	5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	2.66±1.14	1	5
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2.51±1.20	1	5
나는 즐겁지 못한 일이라도 그것을 끝낼 때 까지 매달린다.	3.42±0.99	1	5
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착수한다.	3.40±1.00	1	5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경우에 초기에 성공적이지 못하면 곧 포기한다.	2.46±1.06	1	5
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2.65±1.08	1	5
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2.38±1.02	1	5
나는 실패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한다.	3.43±1.04	1	5
나는 어떤 일을 해내는 나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2.70±1.11	1	5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3.83±0.97	1	5
나는 쉽게 포기한다.	2.50±1.15	1	5
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2.25±1.21	1	5

## 3.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83.38로 나왔고, 가장 높은 점수는 100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29점으로 측정되었다.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4.19점으로 나타났다. 문항 중 활력징후 측정이 4.71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수혈요법이 3.64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활력징후 측정, 경구투약,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간헐적 위관영양, 수술 전 간호, 산소포화도 측정, 비강 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이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정맥 수액 주입, 수

혈요법, 단순도뇨, 유치도뇨, 배출관장, 수술 후 간호, 입원관리,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관리, 기관 내 흡인, 기관절개관 관리,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이 평균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3.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N=88)

핵심 기본 간호술 수행 자신감 설문지	M=SD	Min	Max
활력징후 측정	4.72±0.55	3	5
경구투약	4.58±0.67	2	5
근육주사(둔부의 복면, ventrogluteal site)	4.26±0.85	2	5
피하주사(간이 혈당측정 검사 포함)	4.42±0.77	2	5
피내주사(전완의 내측면)	4.31±0.85	1	5
정맥 수액 주입	3.99±1.07	1	5
수혈요법	3.65±1.09	1	5
간헐적 위관영양	4.34±0.88	1	5
단순도뇨	4.09±0.99	1	5
유치도뇨	4.05±0.93	1	5
배출관장	4.01±0.99	1	5
수술 전 간호(심호흡 격려, 수술부위 피부준비 및 주의사항)	4.27±0.87	1	5
수술 후 간호(배액관-JP, Hemovac 관리, IV PCA 관리)	4.16±0.96	1	5
입원관리하기	3.87±1.12	1	5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관리	4.07±0.99	1	5
산소포화도 측정(Pulse oximeter)과 심전도모니터(EKG monitor)적용	4.47±0.83	1	5
비강 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4.43±0.84	1	5
기관 내 흡인(endotracheal suction)	4.18±0.85	1	5
기관절개관 관리(tracheostomy care)	3.95±1.06	1	5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4.13±1.00	1	5

####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사이에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r=0.167$ ,  $p>0.05$ )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N=88)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임상만족도	직무기대감	시뮬레이션만족도
	r(p)	r(p)	r(p)	r(p)	r(p)
효능감점수	1	.104(.334)	.034(.751)	.088(.413)	.110(.308)
자신감점수	.104(.334)	1	.337(<0.05)	.324(<0.05)	.125(.246)
임상만족도	.034(.751)	.337(<0.05)	1	.537(<0.05)	.488(<0.05)
직무기대감	.088(.413)	.324(<0.05)	.537(<0.05)	1	.590(<0.05)
시뮬레이션만족도	.110(.308)	.125(.246)	.488(<0.05)	.590(<0.05)	1

#### 5.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특성 사이에 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성별과의 상관관계( $r=.485$ ,  $p>0.05$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p>0.05$ ), 학업 성적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p>0.05$ ) 또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과 시뮬레이션 실습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 $r=.110, p>0.05$ )와 자기효능감과 임상 실습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 $r=.034, p>0.05$ ), 자기효능감과 졸업 후 간호사 임상 직무에 대한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 $r=.088, p>0.05$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표 5. 일반적 특성과 변수 간의 관계

(N=88)

분류	특성	자기효능감		
		N(Mean±SD)	t or F	p
성별*	여자	80(49.36±14.37)	-1.145	.273
	남자	8(51.87±7.32)		
나이	20-23세	45(49.48±8.11)	0.698	.556
	24-27세	28(50.07±10.43)		
	27-30세	10(51.50±15.30)		
	31세 이상	5(44.00±3.74)		
학업성적	4.0 이상	13(50.69±12.98)	0.584	.627
	3.5 이상 4.0 미만	36(50.69±9.64)		
	3.0 이상 3.5 미만	30(47.70±9.26)		
	3.0 미만	9(49.88±5.81)		

## 6.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일반적 특성 사이에 관계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성별과의 상관관계( $p>0.05$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상관관계( $p>0.05$ ), 학업 성적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상관관계( $p>0.05$ )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시뮬레이션 실습 만족도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사이의 상관관계( $r=.125, p>0.05$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임상 실습 만족도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상관관계( $r=.337, p<0.05$ )와 졸업 후 간호사 임상 직무에 대한 기대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상관관계( $r=.324, p<0.05$ )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일반적 특성 간의 관계

(N=88)

분류	특성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N(Mean±SD)	t or F	p
성별*	여자	80(83.41)	-1.916	.077
	남자	8(89.25)		
나이	20-23세	45(83.20±12.93)	0.234	.872
	24-27세	28(85.96±11.22)		
	27-30세	10(82.20±21.36)		
	31세 이상	5(84.40±21.96)		
학업성적	4.0 이상	13(89.00±11.77)	4.121	.009
	3.5 이상 4.0 미만	36(85.75±10.54)		
	3.0 이상 3.5 미만	30(83.73±13.93)		
	3.0 미만	9(70.11±21.15)		

##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

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는 최근 covid-19 사태와 환자의 안전 및 권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실습이 확대된 만큼 시뮬레이션 실습의 효과와 교육방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지만, 취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을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교내 기본간호학 실습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을 학습하였고, 3학기 이상의 임상실습 교과목별 핵심기본간호술 평가와 4학년 대상의 핵심기본간호술평가를 완료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선행연구(최금희, 2019)와 비교했을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2.85점으로 선행연구(최금희, 2019)에서의 결과인 3.56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평균 4.19점으로 선행연구(최금희, 2019)에서의 결과인 3.7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대학교 4학년 학생들은 현재 취업과 잦은 면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확신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중 시뮬레이션 실습, 핵심기본술기 교육, 핵심기본간호술기, kals provider과정, bls provider과정, 자율실습, 임상실습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난이도가 낮은 핵심기본간호술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난이도가 높거나 무균술을 요구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은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신규졸업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결과(2014)와도 유사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임상 실습 만족도와 졸업 후 간호사 임상 직무에 대한 기대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 만족도와 임상 실습 만족도, 졸업 후 간호사 임상 직무에 대한 기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였을 때, 시뮬레이션 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임상 실습 만족도와 졸업 후 간호사 임상 직무에 대한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 경험이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와 수행자신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충분한 수행빈도와 반복 연습이 가능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활력징후 측정과 간이혈당측정 검사를 제외한 핵심기본간호술은 임상현장에서 직접 실습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실습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실습과 같은 학습법을 개발하여 난이도가 높거나 무균술을 요구하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지역의 C대학에서 재학 중인 간호학과 4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단일시점에서 조사한 횡단연구라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고, 결과 해석에 있어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익명으로 진행된 조사인 만큼,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것을 고려해야 함에 있어, 결과해석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 V. 제언

본 연구에서 C지역의 C대학에서 재학 중인 간호학과 4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단일집단을 대상